

10명 중 1명 “광주·전남에 고향사랑기부금 내겠다”

농촌경제연 전국 3000명 설문
희망 금액 45.9% '10만원 이하'
52.6% "취약계층 지원에 쓰여야"
인구 많은 수도권 기부 의향 높아
소멸 위기 농촌 기부 유도 필요

자치단체들이 내년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전국 만 18세 이상 3000명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싶은 지역을 물어보니 10명 중 1명(10.6%)은 광주·전남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기(15.2%)와 서울(11.7%)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희망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하자는 제도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기부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담겼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부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경기(15.2%)와 서울(11.7%)이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거주지 기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 기부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기와 서울에 이어 경북(8.4%), 전남(8.2%), 경남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은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세액공제한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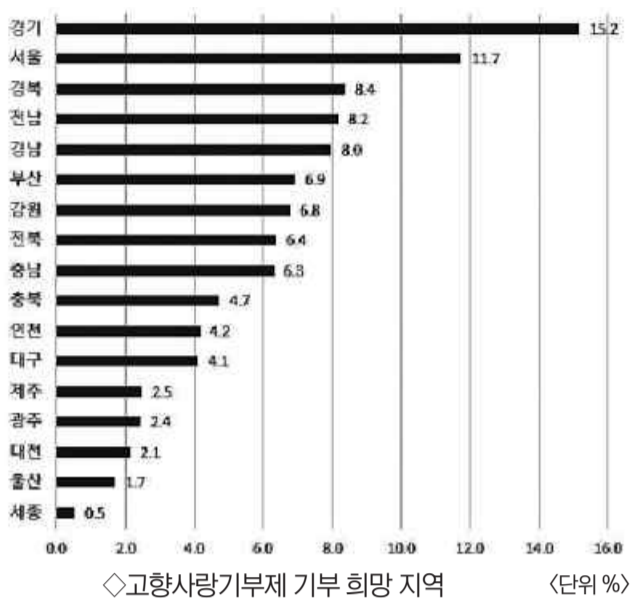
(8.0%), 부산(6.9%), 강원(6.8%), 전북(6.4%), 충남(6.3%), 충북(4.7%), 인천(4.2%), 대구(4.1%), 제주(2.5%), 광주(2.4%), 대전(2.1%), 울산(1.7%), 세종(0.5%)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전북 거주민 293명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이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목적을 물어보니 절반 이상(52.6%)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에 기부금이 사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15.7%), '청소년의 육성·보호'(12.3%),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12.3%),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7.2%) 등 순이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한 지자체는 특정 목적으로만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응답자 가운데 '기부 의사가 없다'는 24.7%를 제외한 나머지에 기부 희망 금액을 물어보니 45.9%는 '10만원 이하'를 말했다. '10만~20만원'이 19.9%로 뒤를 이었고, '20만~50만원' 6.5%, '50만~100만원' 2.2%, '100만~500만원' 0.8% 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 거주민에게 기부하고 싶은 지방 자치단체를 물어보니 '현재 거주지'를 답한 비율이 55.3%로, 전국 7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서울이 29.7%로 가장 낮았고, 전라권과 강원·제주(51.1%)는 현재 거주지 기부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줄 수 없다. 이는 지자체가 기부를 강요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신의 거주지 기부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지역 규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연구원 측은 지적했다.

이외 전라권 거주민 조사 결과 거주지와 출생지가 다른 경우 '출생지에 기부'하고 싶다는 비율이 25.3%로 뒤를 이었다. 거주지·출생지가 아닌 그 밖의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비중은 5.1%였다. 기부할 마음이 없다는 비율은 14.3%로, 7개 권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국승용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문조사 대상 가운데 광주·전남·전북 거주민 비율이 9.8%였지만 기부 희망 지역으로 꼽은 비율이 17% 달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서울은 조사 대상 비중이 18.8%로 높았지만, 기부 희망 비율은 11.7%로 그보다 낮았다"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자체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내다봤다.

또 "제도 도입 초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하다고 "지자체는 자금 운용 계획 수립, 답례품 선정, 홍보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국도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농촌 지자체로 모금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4~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벌였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수에 맞게 할당해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 포인트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장김치 나누고 쌀 전달 광주지역 농협들 세밑 온정

광주지역 농협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웃과 나누며 세밑 온도를 높였다.

우선 북광주농협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회원 40여 명과 청년회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 1300포기로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날 담근 김치는 북구 지역 경로당 30곳과 홀몸 어르신 가정에 전해졌다.

앞서 광주농협은 북구 두암동 본점 회의실에서 '2022년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했다.

이날 광주 대표 쌀인 '빛찬들 햇쌀' 600포를 북구지역에 전달했다. 빛찬들 햇쌀은 북구 12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창농협은 지난 2001년부터 22년째 이어온 '2022년 사랑의 쌀·김치 나누기 행사'를 최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백미 140포, 김장김치 1000포기, 찹쌀 500kg, 라면 140상자, 굴 140상자, 화장지 140꾸러미, 우리밀 꾸러미 140상자, 건강음료 140상자, 떡 100상자 등을 나눴다. 9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는 방한용품도 전했다.

나눔 행사에는 ㈜호남청과와 (주)천지장레몬화원, ㈜해성수산 등이 동참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美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곡성 백세미 방앗간 방문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미셸 박 스틸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곡성 석곡농협의 '백세미 방앗간'을 찾았다고 11일 밝혔다.

석곡농협이 생산하는 친환경 유기농 쌀 '백세미'는 최근 호주와 미국 등지에 수출됐다.

이날 미셸 박 스틸 의원과 남편 손 스틸 전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 등은 백세미 방앗간을 찾아 백세미의 제조과정과 저온 저장 창고, 누룽지 공장 등을 살펴봤다.

이어 방앗간을 기념해 나무를 심기도 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미셸 박 스틸은 117대, 118대 미국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캘리포니아주를 무대로 정치활동을 이어가다 지난 2020년 미국 양원·주지사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48구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돼 연방 하원에 입성했다.

미셸 박 스틸 의원은 "미 하원의원의 재선은 상당히 어려운데, 한인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됐다"며 "미국 한인회장과 맺은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이 미국에 더 많이 판매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함평 한우 농가 세쌍둥이 송아지 탄생

광주축협 조합원 첫 경사
배합사료 50포 선물 축하



광주축협 김호상(왼쪽 2번째) 조합장이 함평군 월야면 박정규·송영순씨 농가를 찾아 배합사료 선물을 전하고 있다. <광주축협 제공>

함평 한우 농가에서 세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나 화제다.

한우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5% 안팎, 세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축협농협은 함평군 월야면 박정규·송영순씨 한우 농가에서 최근 세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나 100일 넘게 어미소와 세쌍둥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11일 밝혔다.

새 생명을 얻은 송아지들은 수송까지 2마리와 암송아지 1마리이다.

예정 출산일보다 열흘 빨리 태어났지만,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난 현재 어미소와 세쌍둥이 모두 건강하다고 광주축협은 설명했다.

광주축협 조합원 농가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축협은 연말 길조를 기념하기 위해 이 농가에 축협이 생산한 배합사료 50포를 선물했다.

김호상 광주축협 조합장은 "송아지 세쌍둥이가 태어난 것은 유래가 거의 없는 일로, 옛날부터 길조로 여겨온 만큼 광주축협에도 큰 경사"라며 "이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 광주축협농협과 지역 축산농가에 앞으로 좋은 기운이 가득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재만(왼쪽 3번째) 조합장과 김용선(왼쪽 4번째) 지사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광주 임곡농협-농어촌공 농촌발전 업무협약

농지은행사업 농업인 맞춤형 지원

광주 임곡농협이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지은행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와 맺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기재만 임곡농협 조합장과 김용선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이 최근 '농촌지역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농지임대사업인 농지

은행 제도를 농업인에게 맞춤형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포럼·세미나 공동 개최를 통한 농정 협력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기 조합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농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효과 창출의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와 협력을 통해 농업인 복지 향상, 농촌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설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